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와 영향요인

박 경 란*·박 호 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업종이 고도화되며 경력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 전반적인 개편과정에 따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 청년실업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Lee & Chung, 2003).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실업률이 3.9%에 이르며, 15-29세 청년실업자수는 431,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이 8.7%에 해당한다.

청년 실업 문제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인적 자원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우려가 있다. 미취업 20대 청년들은 취업한 청년에 비해 신체화 증상,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적대감 및 불안 등 취약한 정신 건강 상태를 보인다고 하였다(Lee et al., 2000).

또한 대학생은 진로 문제로 인한 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최근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취업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Lee, 2004). 특히 구직활동 중인 대졸 예정자들이 최근 경제 불황과 취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높은 취업 스트레스를 겪으며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Shin & Chang, 2003). 이처럼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대학 졸업반 학생의 정신 건강관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년실업문제와 관련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건 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취업 스트레스 하부 영역 점수를 비교한다.
- 5)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하부 영역 점수 간 상관관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석사 과정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교신처지 E-mail: hrpark@catholic.ac.kr)

- 6)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교 4학년의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원이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설문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각 학교의 교수 또는 조교의 협조를 얻어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인문사회계열, 어문계열, 이공계열, 예술계열, 간호계열의 대학생 중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사람 259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4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였으며, 그 중 자료가 불충분한 9명을 제외하고 250명(96%)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취업스트레스

Hwang(1998)이 코넬대학의 Cornell Medical Index를 참고하여 개발한 취업스트레스 측정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 측정도구 총 72개 문항 중 중복 의미를 가진 문항을 선별하여 총 50개의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는데 어문학 박사 1명, 통계학 및 간호학 박사생 및 교수 등 총 10명에게 자문을 받아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4개 하부 영역 즉 학업 관련 스트레스(9 문항), 성격 관련 스트레스(24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7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

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가 .97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t-test와 ANOVA와 Scheffé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취업 스트레스 하부 영역 점수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37.2%, 여자가 62.8%였으며, 평균 연령은 25.5세였다. 전공계열별로는 예술계열 18.4%, 공학계열 18.4%, 인문사회계열 18.4%, 어문계열 14.8%, 간호계열 18.8%, 체육계열 4.0%, 이학계열 7.2%이었고, 학업성취도는 상 22.4%, 중 73.6%, 하 4.0%로 응답하였다. 휴학 경험은 대상자의 54.4%가 있었으며, 휴학 학기 수는 2 학기가 18.8%로 가장 높았으며, 군복무를 포함한 6학기 휴학도 15.6%이었다. 희망하는 직종은 전문직 및 전문기술직이 70.0%로 가장 많았으며 대상자의 24.4%만이 취업이 결정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48.8%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개의 자격증을 소유한 대상자가 31.2%, 2개가 13.6%, 3개 이상이 4.0%이었다.

경제적 상태는 '중'이라 응답한 대상자가 84.8%로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는 무교가 38.2%, 기독교 31.3%, 가톨릭 21.3%, 불교 9.2%였다. 한편 대상자의 71.2%가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으며, 흡연은 대상자의 83.2%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200점 만점 중 평균 96.5점이었으며 평균평점은 4점 만점 중 1.9점이었었다. 스트레스 하위 영역별로는 학교환경 스트레스가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93(37.2)
	female	157(62.8)
Major	art	46(18.4)
	engineering	46(18.4)
	human&social	46(18.4)
	language	37(14.8)
	nursing	47(18.8)
	physical	10(4.0)
	science	18(7.2)
GPA	high	56(22.4)
	middle	184(73.6)
	low	10(4.0)
Absence from School	no	114(45.6)
	yes	136(54.4)
Duration of Absence from School (semester)	0	114(45.6)
	1	25(10.0)
	2	47(18.8)
	3	25(10.0)
	6	39(15.6)
Preferred Career	technologist	175(70.0)
	management	12(4.8)
	officer	28(11.2)
	service	12(4.8)
	self-management	8(3.2)
	etc	15(6.0)
Being hired	no	189(75.6)
	yes	61(24.4)
Number of License	none	128(51.2)
	1	79(31.2)
	2	34(13.6)
	≥3	10(4.0)
Economic status	high	13(5.2)
	middle	212(84.8)
	low	25(10.0)
Religion	none	95(38.2)
	Catholic	53(21.3)
	Christian	79(31.3)
	Budohist	23(9.2)
Drinking Alcohol	no	72(28.8)
	yes	178(71.2)
Smoking	no	208(83.2)
	yes	42(16.8)

7개 문항 총점 28점 중 평균 14.3점, 평균평점 2.1점으로 가장 높았다.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평균 평점 2.0점이었으며 성격 관련 스트레스와 가족환경 스트레스의 평균평점은 각각 1.9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특성별 취업 스트레스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남자가 96.1점, 여자가 96.8점으로 남녀 간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는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즉 어문계열이 10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간호계열이 70.3점으로 가장 낮아 간호계열의 취업 스트레스가 다른 전공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학업 성취도별 취업스트레스는 '상' 92.3점으로 '중' 97.8점, '하' 96.6점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56$). 휴학 경험별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휴학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100.0점, 휴학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92.2점으로 휴학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20$). 휴학 학기 수별 취업 스트레스 점수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p=0.033$), 2학기 휴학한 대상자가 107.2점으로 가장 높아 휴학하지 않은 대상자의 92.5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희망직종별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서비스직 희망자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118.2점으로 전문 기술 직 희망자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 93.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6$).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가 102.7점으로, 취업이 결정된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77.6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0$), 자격증 소지별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902$). 경제 상태, 종교, 음주여부 및 흡연여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2> Degree of total employment stress and sub-factors

	Number of items	Total mean	M±SD	Range
Total employment stress	50	96.5	1.9±0.5	1~4
academic stress	9	17.8	2.0±0.6	1~4
personality stress	24	45.7	1.9±0.6	1~4
school environmental stress	7	14.3	2.1±0.7	1~4
home environmental stress	10	18.8	1.9±0.6	1~4

<Table 3> Employment stress by characteristics (N=25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mployment stress M±SD	t or F (P)
Gender	male	96.1±25.1	.18 (.854)
	female	96.8±27.3	
Major	art ^a	100.0±25.6	14.19 (.000)
	engineering ^b	95.8±25.0	
	human&social ^c	105.3±19.2	
	language ^d	109.4±22.6	
	nursing ^{abcde}	70.3±21.0	
	physical ^e	98.9±25.6	
GPA	science ^f	107.9±24.1	1.36 (.256)
	high	92.3±24.9	
	middle	97.8±26.5	
Absence from School	low	96.6±33.0	5.47 (.020)
	no	92.2±27.5	
Duration of Absence from School (semester)	yes	100.0±25.1	2.66 (.033)
	0 ^a	92.5±27.5	
	1	97.4±24.6	
	2 ^a	107.2±20.8	
	3	96.2±28.3	
Preferred Career	6	95.1±27.0	2.85 (.016)
	technologist ^a	93.4±26.5	
	management	99.8±25.3	
	officer	105.2±27.2	
	service ^a	118.2±14.7	
Being hired	self-management	94.9±32.4	49.53 (.000)
	etc	97.9±20.2	
Number of License	no	102.7±24.4	0.19 (.902)
	yes	77.6±23.4	
	none	95.3±27.5	
	1	98.1±25.6	
Economic status	2	97.1±26.7	1.34 (.264)
	≥3	98.3±19.4	
	high	108.1±17.6	
Religion	middle	96.0±26.7	1.44 (.231)
	low	94.8±27.6	
	none	94.5±28.2	
	Catholic	94.6±28.9	
Drinking Alcohol	Christian	101.7±23.9	1.88 (.171)
	Buddhist	92.3±22.4	
Smoking	no	100.1±23.1	0.17 (.681)
	yes	95.1±27.6	
	no	96.2±26.4	
	yes	98.1±26.8	

a,b,c,d,e,f : Scheffé test(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4. 대상자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하위 영역 점수 비교

취업 스트레스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 성격 관련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학업 관련 스트레스

대상자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 정도는 전공, 휴학경험, 희망직종, 취업결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Table 4> Comparison of sub-factors in employment stress by characteristics (N=250)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t or F	personality stress	t or F	school environmental stress	t or F	home environmental stress	t or F
	9items (36)	(P)	24items (96)	(P)	7items (28)	(P)	10items (40)	(P)
	M±SD		M±SD		M±SD		M±SD	
Gender								
male	18.3±5.4	1.44	45.6±13.8	0.00	13.7±4.0	3.26	18.6±5.6	0.16
female	17.5±5.1	(.231)	45.7±13.5	(.973)	14.7±4.9	(.072)	18.9±6.5	(.693)
Major								
art	17.5±4.4 ^a		47.2±13.1 ^a		15.7±5.0 ^a		19.6±6.3 ^a	
engineering	17.2±5.4 ^b		45.8±13.3 ^b		14.2±3.7 ^b		18.6±5.4 ^b	
human&social	19.8±4.3 ^c	14.77	49.1±11.7 ^c	9.27	15.1±3.7 ^c	12.79	21.4±5.0 ^c	10.79
language	20.8±5.0 ^d	(.000)	51.4±11.2 ^d	(.000)	16.2±4.0 ^d	(.000)	21.0±5.2 ^d	(.000)
nursing	12.9±3.7 ^{abcccc}		34.2±10.0 ^{abcccc}		10.0±3.7 ^{abcccc}		13.3±5.4 ^{abcccc}	
physical	17.7±3.5 ^b		47.0±13.2 ^b		13.9±4.2 ^b		20.3±7.1 ^b	
science	20.8±4.8 ^d		50.4±16.7 ^d		16.9±4.1 ^d		19.8±5.5 ^d	
GPA								
high	16.4±4.4		43.8±12.1		13.8±4.3		18.4±6.2	
middle	18.1±5.3	2.77	46.2±13.9	0.75	14.6±4.5	1.16	18.9±6.1	0.19
low	19.4±7.3	(.065)	46.1±14.5	(.473)	12.9±7.4	(.317)	18.2±8.0	(.826)
Absence from School								
no	17.0±5.3	4.69	43.6±13.6	4.85	13.8±5.1	2.97	17.9±6.4	4.12
yes	18.4±5.2	(.031)	47.4±13.3	(.029)	14.8±4.1	(.066)	19.5±5.9	(.043)
Duration of Absence from School (semester)								
0	17.0±5.2		43.6±13.5a		13.8±5.1 ^a		18.1±6.6	
1	18.6±5.5	1.64	45.4±12.5	3.10	14.6±4.1	2.54	18.7±6.0	1.31
2	19.0±4.4	(.164)	51.7±11.3a	(.016)	16.1±3.5 ^{ab}	(.046)	20.6±5.0	(.267)
3	17.2±5.1		45.5±14.2		14.6±4.5		19.0±7.0	
6	18.5±5.9		44.7±14.8		13.4±4.3b		18.5±5.6	
Preferred Career								
technologist	16.9±5.2 ^{bc}		44.2±13.2 ^c		14.1±4.7		18.2±6.3 ^c	
management	19.1±6.0		48.3±13.3		13.8±3.7		18.6±4.7	
officer	19.7±5.1 ^a	3.38	48.8±15.0	2.52	15.6±4.3	2.13	20.9±6.0	2.30
service	20.7±3.1 ^b	(.006)	56.9± 7.2 ^b	(.030)	17.4±2.4	(.063)	23.2±3.8 ^b	(.046)
self-management	19.4±5.0		45.0±17.5		13.4±6.2		17.1±7.0 ^d	
etc	19.9±4.7 ^c		45.8±13.0		13.2±3.5		19.0±5.5	
Being hired								
no	18.9±4.9	44.45	48.5±13.1	38.09	15.3±4.4	38.09	20.0±5.8	32.85
yes	14.2±4.6	(.000)	37.0±11.3	(.000)	11.4±4.0	(.000)	15.1±5.8	(.000)
Number of License								
none	17.3±5.1		45.0±14.0		14.3±4.6		18.7±6.5	
1	18.5±5.7	0.80	46.5±12.8	0.21	14.3±4.7	0.03	18.8±5.9	0.06
2	17.7±5.1	(.494)	46.1±14.5	(.890)	14.4±4.8	(.992)	18.9±6.0	(.980)
≥3	17.8±2.9		46.2±11.9		14.7±3.0		19.6±4.7	
Economic status								
high	20.1±4.1		50.5± 9.3		16.5±3.0		20.9±4.7	
middle	17.6±5.3	1.36	45.5±13.7	0.90	14.3±5.0	2.68	18.6±6.1	1.01
low	17.5±4.9	(.257)	44.9±14.0	(.406)	13.0±5.0	(.078)	19.4±7.7	(.366)
Religion								
none	17.8±5.6		44.6±15.1		13.9±4.8		18.5±6.4	
Catholic	17.6±5.2	1.24	45.5±13.4	1.15	13.7±4.8	1.96	17.8±6.6	1.85
Christian	18.2±5.1	(.295)	48.0±11.8	(.329)	15.3±4.4	(.120)	20.1±5.7	(.138)
Buddhist	15.9±4.2		43.7±12.1		14.5±3.7		18.2±5.2	

<Table 4> Comparison of sub-factors in employment stress by characteristics(continued)

(N=250)

Characteristics	academic stress	t or F	personality stress	t or F	school environmental stress	t or F	home environmental stress	t or F
	9items (36) M±SD	(P)	24items (96) M±SD	(P)	7items (28) M±SD	(P)	10items (40) M±SD	(P)
Drinking Alcohol								
no	18.1±4.3	0.51	47.2±12.3	1.32	15.1±4.1	2.88	19.7±5.7	2.17
yes	17.6±5.6	(.4751)	45.0±14.0	(.251)	14.0±4.8	(.091)	18.4±6.3	(.142)
Smoking								
no	17.5±5.1	1.97	45.5±13.5	0.28	14.4±4.6	0.63	18.8±6.2	0.00
yes	18.8±5.8	(.161)	46.7±14.2	(.594)	13.8±4.5	(.428)	18.8±6.1	(.994)

a, b, c, d, e, f : Scheffé test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었다. 즉 전공별로는 간호계열의 학업관련 스트레스 점수가 다른 전공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 휴학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휴학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31). 희망직종별로는 서비스업 희망자, 기타업종 및 사무직 희망자가 전문직, 전문 기술직 희망자보다 각각 유의하게 높았다(p=.006). 또한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취업이 결정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Table 4>.

2) 성격 관련 스트레스

성격 관련 스트레스 정도는 전공, 휴학경험, 휴학하기 수, 희망직종, 취업결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공별로는 간호계열이 낮아 다른 전공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 휴학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휴학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29), 휴학 학기 수 2학기인 대상자가 휴학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16). 희망직종별로는 서비스업 희망자가 전문직, 전문 기술직 희망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30).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취업이 결정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Table 4>.

3) 학교환경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정도는 전공, 휴학 학기 수, 취업결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별로는 간호계열의 학교환경 스트레스 점수가 다른 전공계열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 2학기 휴학한 대상자가 16.1점으로 휴학하지 않은 대상자, 6학기 휴

학한 대상자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46).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취업이 결정된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0)<Table 4>.

4) 가족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 정도는 전공, 휴학경험, 희망직종, 취업결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전공이 다른 전공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 휴학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휴학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하여 가족환경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43). 서비스업 희망자의 가족환경 스트레스 점수가 전문직, 전문 기술직을 희망하는 대상자, 자영업 을 희망하는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459).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스트레스 점수가 취업이 결정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Table 4>.

5. 취업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하위 영역별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다.

학업 관련 스트레스 점수는 성격 관련 스트레스 점수(r=.70, p=.000), 학교환경 스트레스 점수(r=.58, p=.000), 가족환경 스트레스 점수(r=.60, p=.000)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성격 관련 스트레스,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가 높았다. 성격 관련 스트레스도 학교환경 스트레스(r=.70, p=.000), 가족환경 스트레스

<Table 5> Correlation among sub-factors in employment stress

	academic stress r(p)	personality stress r(p)	school environmental stress r(p)	home environmental stress r(p)
academic stress	1.00			
personality stress	.70 (.000)	1.00		
school environmental stress	.58 (.000)	.70 (.000)	1.00	
home environmental stress	.60 (.000)	.79 (.000)	.73 (.000)	1.00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mployment stress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t	p
Intercept	16.354	1.840	8.888	.000
personality stress major	1.785 -7.019	.037 1.268	48.726 -5.536	.000 .000

R²=.927 P=.000

(r=.79, p=.000)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성격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환경 스트레스, 가족환경 스트레스가 높았다.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가족환경 스트레스(r=.73, p=.000)와 유의한 양의 상관이 있었다.

5. 취업 스트레스 영향 요인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성격 관련 스트레스와 전공으로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의 총 92.7%를 설명한다<Table 6>.

IV. 논 의

최근 경제 위기로 비롯된 사회적 불안정은 대학사회에까지 파급되어 학생들의 학업 영역과 진로, 취업 영역에서의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Park et al., 2002), 대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구직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준비과정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

며 스트레스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긴장상태라고 할 수 있다(Kim, 2004).

본 연구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200점 만점 중 평균 96.5점으로 중정도의 취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heong(2000)의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Lee(2004)의 전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이상의 스트레스 점수로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간호대 학생이 포함되었기에 전체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선행 연구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Hwang(1998)과 Lee(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 희망직종, 휴학여부, 휴학 학기 수, 취업결정여부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공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간호계열이 비 간호계열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았다. Hwang(1998)의 연구에서 인문 계열이 공업 계열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인문 계열과 공업 계열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지만 인문 계열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약간 높은 경향이 있어 선행 연구

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ark과 Kim(2000)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호계열과 비 간호계열 간 일반 스트레스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는 일반 스트레스가 아닌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간호계열이 비 간호계열과 일반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지만, 취업 스트레스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망 직종별로 본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서비스업과 전문 기술직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서비스업종이 고객의 만족에 중점을 두는 현장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분야이며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구직자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상태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Lee(2004)의 결과와 일치하였지만, Hwang(1998)과 Cheong(2000)의 연구에서 경제형편이 '하'인 그룹이 '중'인 그룹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는 결과와 상반되었다. 이는 대상자 중 경제 상태에 '중' 정도로 기입한 학생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휴학 유무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휴학 경험이 55.6%이었는데 이는 Work Information Center(2001)의 보고 결과보다 휴학 경험자 수가 높았다. Work Information Center(2001)에서 4년제 대학생 중 휴학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49.6%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휴학 사유의 약 62%가 군입대 문제임을 보고하고 있다. 휴학 경험 학생 139명 중 남학생이 77명인 것으로 볼 때, 군입대로 인한 휴학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군입대 휴학자를 제외하고 휴학 학기 수가 2학기인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휴학을 하지 않은 대상자 및 1학기 휴학 대상자보다 취업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담을 더 느끼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학점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Cheong(2000)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알콜 섭취 여부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McCreary와 Sadava (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Nam 등(2002)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행동 분석 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알콜을 더 많이 섭취하였다는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또한 흡연 여부 및 흡연량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Kim(2000)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Rhim 등(200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흡연량이 증가하며 스트레스와 흡연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종교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Park과 Kim(2000)의 일반 스트레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취업결정여부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취업이 결정된 학생의 경우 취업이 결정되지 않은 학생보다 취업 스트레스가 낮았다. 이는 스트레스가 인간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처해야 할 변화 또는 위협적인 상황이 야기되면 강화되는 상태로서,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취업이 결정된 학생이 취업이 미결정된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취업 스트레스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취업 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적 특성 중 전공, 희망직종, 휴학여부, 취업결정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Hwang(1998)의 연구에서는 계열, 학년, 가정형편, 성적, Cheong(2000)의 연구에서는 성, 학업성취정도, 계열, Lee(2004)은 학업성취도가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를 지지하였다.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경우 학점 및 학업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생기게 되며 전공 및 희망직종 별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취업으로 인한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격 관련 스트레스는 전공, 희망직종, 휴학여부, 취업결정여부, 휴학 학기 수에 따라 유의하였는데 Hwang(1998)의 연구에서는 학년, 가정형편, 성적, Cheong(2000)의 연구에서는 성, 학업성취정도,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Lee(2004)는 학년에 따라 성격 관련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Shin과 Chang(2003)의 연구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 4학년생이 성격 특성에 따라 구직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 특성의 취약성이 장기간의 취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전공, 취업결정여부, 휴학 학기 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Hwang

(1998)은 계열, 학년, 성별(여>남), 가정형편, 성적, Cheong(2000)은 계열, 성, Lee(2004)는 성적에 따라 학교환경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학교환경 스트레스는 취업 및 진로에 대한 학교의 지원 및 복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 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Rhyu와 Kim(1998)은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높게 지각하는 학생일수록 학업, 취업 관련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학생에게 있어 가장 밀접한 사회인 학교는 전공에 따라 취업이 잘 되지 않는 학과나 휴학학기수가 길어 취업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의 경우 좀 더 세밀한 학교의 학생들의 취업 대책 마련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환경 스트레스는 전공, 희망직종, 휴학여부, 취업결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Hwang(1998)은 학년, 성별(남>여), 가정형편, 성적, Cheong(2000)은 성, 가정형편, Lee(2004)는 학년에 따라 가족환경 스트레스 점수가 유의하였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가족환경으로부터 받는 취업 스트레스는 대학교 졸업반 학생에게 있어 취업 및 진로의 방향 및 휴학을 결정하게 되는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는 환경이며, 가족은 취업을 준비함에 있어 정서적 지지가 가장 요구되는 환경으로 사료된다.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격 스트레스 점수와 전공으로 분석되었다. 성격 스트레스와 전공이 취업 스트레스를 총 92.7% 설명하였는데 이는 Shin과 Chang(2008)의 연구에서 개인적인 성격 특성이 취업 스트레스, 정신건강과 관련성이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성격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중재가 필요함을 내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선행연구와 다르게 간호계열을 조사하였기에 선행연구의 비 간호계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할 때 학업, 성격, 학교환경, 가족환경 스트레스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간호계열 학생이 타 계열과 비교하여 취업이 수월함을 반영한 결과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 및 상담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스트레스 이외의 우울이나 기타 다른 증상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학

졸업반 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250명으로, 200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취업 스트레스 도구는 Hwang(1998)이 고안한 대학생 취업 스트레스 척도를 50개의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와 Scheffé,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및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정도는 총점 200점 만점에 평균 96.5점이었다. 학교환경 스트레스 평균 평점은 2.1점, 학업 스트레스 평균 평점은 2.0점, 성격 관련 스트레스는 1.9점, 가족환경 스트레스 1.9점이었다.
2.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는, 전공($p=0.000$), 희망직종($p=0.016$), 휴학여부($p=0.020$), 취업결정여부($p=0.000$), 휴학학기 수($p=0.03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의 영향에 미치는 요인은 성격 관련 스트레스와 전공이었으며 취업 스트레스의 총 92.7%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대학교 졸업반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공 및 희망직종, 휴학여부에 따른 중재 및 상담이 시행될 것을 제언한다.
2. 연구의 대상을 확대시켜서 반복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3. 선행 문헌에서 스트레스와 우울 및 다른 증상과의 관계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교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와 우울 및 다른 증상간의 관계 연구를 진행하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Cheong, Hae Eun (2000).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of Osan college students. *Student Review of Osan college*, 5, 89-105.
- Hwang, Seong Won (1998).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The Donga university of Korea. Pusan.
- Kim, Hye Jong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employment stress, depression, anxiety and physical symptom in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aegu.
- Lee, Hoon Koo, Kim, Inkyung, Park, Yoonchang (2000). The psychological effect of economic depression on the 20's unemployed. *Korean J of Psycho and Soc Iss.* 6(2), 87-101.
- Lee, Mi Kyung (2004).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and self-efficiency*. Master's thesis. The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 Jeonbuk.
- Lee, Sang Woo, Chung, Kweon Taek (2003). A study about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increasing youth unemployment. *CEO Information*. 395. 1-22.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oul.
- McCreary, D. R., Sadava, S. W. (2000). Stress, alcohol use and alcohol-related problems : the influence of negative and positive affect in two cohorts of young adults. *J Stud Alcohol*. 61(3), 466-474.
- Nam, Hee Jung, Lee, Sun Mi, Park Hae Ryun (2002). An ecological study on dietary Behaviors by the degree of stress female college students in Suwon. *J Korean Soc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1), 199-212.
- Park, Hoo Nam, Kim, Myung Ja (2000). Health promoting lifestyle,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college female students. *J Korean Comm Health Nurs Acad Soc*. 14(2), 318-331.
- Park, Hyun Sook, Bae, Young Joo, Jung, Sun Young (2002).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1(4), 621-631.
- Rhim, Kook Hwan, LeE, Jun-Hyup, Choi, Man Kyu, Kim, Chun Jin (2004).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Pub Health Res*. 30(1), 57-70.
- Rhyu Jin Hye, Kim Tae Sung (1998).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stress and stress coping mode. *Journal of Guidance Research*. 16(1). 211-232.
- Shin Hyun Kyun, Chang Jae Yoon (2003). The relationship amo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gender, job-seeking stress and mental health in college seniors. *The Korean J of Clinical Psycho*. 22(4), 815-827.
- Work Information Center. *2001 Youth Panel 2*, 2001. <http://youthpanel.work.go.kr/frame.html>

ABSTRACT

A Study on the Employment Stress in Senior-year University Students

Park, Kyung Ran(Master Student,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ark, Ho Ran(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urpose: We wanted to examine the degree of employment stress that university seniors suffer and to find the factors affecting on this employment stress. **Methods:** The subjects were 250 university senior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he data were gathered by using questionnaires that were administered from September to October in 2004.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AS program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 of the respondents' total employment stress was 96.5 points out of 200. Their sub-factors of employment stress was 2.0 out of 4.0 for "academic", 1.9 for "personality", 2.1 for "school environments" and 1.9 for "home environments". The degree of the seniors' employment stress from such things as their majors, their available jobs in the future, leaves of absence from school, the employment status, and the number of semesters within the leave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The major factors affecting on the employment stress were those related to personality stress and majors of the students, and these were 92.7% of the total stress.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or counseling with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seniors' employment stress and the other symptoms like depression for improving the health of university seniors.

Key words : University, Seniors, Employment, Stress